

작품 내용

제 목	마지막 페이지의 이름
내 용	서준은 오래된 도서관을 좋아했다. 비 오는 날이면 친구들은 모두 게임을 하러 가거나 집으로 뛰어갔지만, 서준은 늘 학교 뒤편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빛바랜 책들로 가득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장소 같았다. 어느 날 서준은 먼지가 잔뜩 쌓인 책장 아래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제목도 이름도 없었다. 호기심이 생긴 서준은 조심스럽게 첫장을 펼쳤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에게.”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준은 페이지를 넘겼다. 공책 안에는 한 소년의 소설이 적혀 있었다. 주인공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작가를 꿈꾸는 학생이었다. 글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비 오는 골목, 희미한 가로등, 새벽까지 원고를 쓰는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다. 마지막 장을 읽은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와... 진짜 재밌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어디서 찾았니?” 도서관 관리인이었다. 서준은 공책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진짜 잘 썼는데요?” 관리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 공책... 예전에 여기 자주 오던 학생이 쓴 거란다. 그 아이 이름이 이성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은 지금 작가예요?” 관리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 아이 글을 몰래 자기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렸거든.” 서준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럼... 원래 쓴 사람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대. 결국 글쓰기를 포기했다고 들었어.” 도서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서준은 다시 공책을 바라봤다. 분명 누군가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지우고, 다시 쓰며 완성했을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노력이 단 한 번의 도용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관리인은 책장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결과만 쉽게 가져가려 하거든. 하지만 창작은 시간을 훔치는 것과 비슷해. 누군가의 인생 일부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 말은 서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평소처럼 인터넷을 켜다. 그리고 자신이 자주 보던 영상들과 그림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재미있는 콘텐츠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화면 너머에는 분명 그것을 만들기 위해 밤늦게까지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서준은 책상 위 공책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주길 바란다.’

서준은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공책 첫 장 빈칸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원작자 : “이성훈”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준은 웬지 그 이름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